무안군, 항공정비 특수목적법인 설립

㈜무안엠알오코리아 설립 등기 완료…항공 산업 추진

1단계 34,500㎡ MRO용 격납고 건설 등 700억원 투자

무안군은 항공정비(MRO) 사업을 추진해 나갈 특수목적법인인 ㈜무안엠알오코리아(MUAN MRO KOREA)의 설립 등기를 지난 16일 완료해 본격적으로 항공 산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항공정비(MRO) 등 항공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항공정비업체인 가루다항공계열사 GMF와 호주의 TWA 그룹과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무안엠알오코리아(MUAN MRO KOREA)는 1단계로 34,500㎡에 항공정비(MRO)용 격납고 건설과 시설장비, 운영관리, 교육·훈련 등에 총 700억 원을 투자하고 2단계 부지에 항공 관련 연관 산업을 유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총 1,000명(1단계 250명, 2단계 750명) 이상의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와 국내외 항공연관 기업들의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갈 신 성장산업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총면적 32만㎡에 항공정비와 관련한 복합 산업을 적극 유치할 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사업을 주도해 나갈 전담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양질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정비 산업의 메카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민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 미래의 꿈이 있는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추진되는 항공정비(MRO) 산업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저비용 친환경 볍씨 종자 소독법 보급

농업기술센터, 벼 키다리병 예방 종자소독 연시회

진도군농업기술센터가 벼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키다리병 등 종자로 전염되는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볍씨 종자 소독 연시회를 최근 진도군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개최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적인 볍씨소독방법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온탕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시회에서 온탕소독기 사용법을 시연하고 석회유황 소독방법도 함께 농민들에게 소개했다. 이 소독법은 키다리병 방제효과가 99%로, 병균의 약제 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독 비용도 일반 관행 종자소독약 대비 49% 절감되는 새로운 기술이다.

특히 연시회를 통해 정부에서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타작물 재배, 쌀 적정생산 3저3고 실천운동,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제도)와 쌀 공급 과잉, 쌀가격 하락 등에 대한 대응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볍씨를 통해 전염되는 키다리병, 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이삭선충 등은 철저한 종자소독을 통해 충분히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며 "신 소독기술은 소요되는 비용이 적어 농가의 경영비 절감효과도 높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여수시, 전기車 공용 충전인프라 대폭 '확충'

21곳에 급속 31대·완속 8대 확보

여수시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청 여서청사 주차장등 17곳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26대와 완속충전기 8대가 추가 설치됐다.

이번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여수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7월 충전인프라 확충 협약을 체결하며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급속충전기 31대, 완속충전기 8대 등 총 39대의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보하게 됐다.

충전기 설치 위치는 지역적 분포와 설치 용이성 등을 고려했고, 공동주택은 한전이 공모를 실시한 후 입주민과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시는 환경부의 협조를 통해 오는 6월까지 롯데마트(2곳), 소호요트경기장, 보람주유소 등 4곳에 6대의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급속충전기의 경우 완전 방전상태에서 80% 충전까지 30분, 완속충전기는 4~5시간 걸린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충전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으로 1대당 2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새내기 공무원 통통 아이디어 발굴단

완도군은 창의적인 군정발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새내기 공무원 통통 아이디어 발굴단'을 운영한다.

2018년도 신규임용공무원과 공직 선배 멘토로 구성된 새내기 공무원 통통 아이디어 발굴단은 팀당 2명씩 15개팀으로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발, 산업경제, 환경안전, 인구정책 7개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군 시책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발굴단은 지난 2일부터 아이디어 발굴을 시작하여, 청년들이 만드는 홍보영상 나도갈래! 너도올래?, 인공지능 민원상담 '빙그레봇', 완도 관광명소 음원제작, 완도 젊음의 거리 '완리단길' 조성 등 이색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군은 이들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성과별로 실적가점,

상시학습시간 인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현종 기획예산실장은 "통통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은 다소 경직되어 있는 공무원 조직 문화에서 탈피해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내기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군정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미래인력 육성 '본격화'

내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교육 개강식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원장 제해신)은 오는 20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교육 개강식과 학술포럼을 갖고 버섯산업 미래 인력 육성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춰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버섯산업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날 개강식과 학술포럼에는 교육생과 전국지자체 연구소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1부 개강식은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일정 설명, 강사진 소개 등 간단한 기념식으로 진행된다.

오후에 진행되는 2부 학술포럼에는 버섯산업연구원 성과 및 비전 발표와 특강이 마련돼 있다.

이날 버섯산업연구원 김경제 연구기획부장과 정상욱 연구원은 각각 '연구원의 활동성과'와 '젊은 과학자의 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이 '4차 혁명, 스마트농업이 미래다'란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이번 교육에서 지역 버섯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버섯종균기능사 양성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버섯전문인력을 육성해 버섯종균 및 배지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을 제공하는 등 지역 버섯산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은 구체적으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이론강의와 실습을 병행한다.

최근 버섯재배 기술의 발전 및 버섯소비 증가로 인해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버섯종균기능사는 버섯종균에 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우량 버섯종균을 제조하는 지능인력으로 1984년도에 처음으로 시험제도가 실시됐다.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에게는 버섯 재배 및 종균제조 업체를 비롯한 관련 산업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으로, 관련 산업체의 창업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제해신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은 "장흥군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의 4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버섯 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역 버섯산업에 더욱 탄탄한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김흥필 기자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